

김유미 연구원

### 요약

디지털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로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보장 니즈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보험의 경우 표준화된 상품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시스템 기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중소기업 보험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 손해보험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업종과 조직 규모가 다양해지면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방식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OECD 국가 전체 기업의 99%,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규모가 손해보험(commercial property and casualty lines) 총 보험료의 약 60% 이상을 차지함<sup>1)</sup>
  - 2020년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국가는 영국(101%), 미국(86%), 호주(73%), 독일(62%) 및 캐나다(58%)임<sup>2)</sup>
  - 디지털화로 원격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행동의 진화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함
    -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화한 오프라인 기업의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3배 이상 증가함
- 이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고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험에 대한 보장 니즈로 이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은 평판 리스크, 영업비밀 리스크, 정치 또는 규제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특히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외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이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정점일 때의 매출은 대기업보다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남<sup>3)</sup>

1) McKinsey&Company(2020. 11. 5), "Insurers must rethink the SME segment: Lessons from the United Kingdom"

2) World Economic Forum(2021. 11. 2), "Here are the top 10 nations enjoying the fastest growth in small businesses - and why it matters"

- 또한 코로나19로 디지털화 및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개인(근로자) 상해 및 배상책임 리스크가 부각되고 사고 예방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 Deloitte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6%는 가입자가 보장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보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는 전통적인 보험 서비스를 넘어 법률 자문, IT 컨설팅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sup>4)</sup>
- 한편, 중소기업 보험의 경우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하여 표준화된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높은 보험료 부담과 보장 범위 부족으로 일부보험이나 무보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의 손해율은 비즈니스 종류와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으나 손실 규모는 큰 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장 범위 및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혁신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리스크 평가 및 요율 산출에 대한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 편으로 전문 인력 확보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보장 니즈는 다양하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복잡하거나 부족하여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일부보험이나 무보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해외 보험회사는 디지털화에 따른 시스템 기반의 효율성 개선,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비용 절감,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sup>5)</sup> 중소기업 보험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개선함
- 영국의 인수어테크 기업인 Digital Fineprint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알고리즘 및 데이터 소싱 플랫폼을 제공하여 보험회사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보장 니즈를 파악하고 적절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21년 9월 Amazon은 인수어테크 기업인 Superscript와 제휴하여 멤버십 프로그램인 Business Prime을 통해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중소기업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음
  - Chubb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사고 신고, 법률자문 등 손실 복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고 대응팀을 마련하여 전통적인 보험 보장 범위를 넘어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sup>6)</sup>
  - 영국 보험회사 Hokodo는 은행 플랫폼 Tide와 제휴하여 청구서 연체 및 미납금에 대한 보장을, 미국 손해보험회사 Thimble은 최대 30일 동안 보험 정책 및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sup>1)</sup> 유연한 보험 정책을 제공하여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및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중소기업 보험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될 수 있음

3) Mastercard Economics Institute(2021. 11. 21), "Recovery Insights: Small Business Reset"

4) Deloitte(2020. 11. 12), "33% of SME's are "more interested" in insurance because of COVID-19, but will that interest last?"

5) Munich RE(2021. 8. 7), "SME insurance: An attractive market with growth potential"

6) SMF Finance Forum(2021. 7. 14), "Entering a New Era: SME Insurance and Technology"